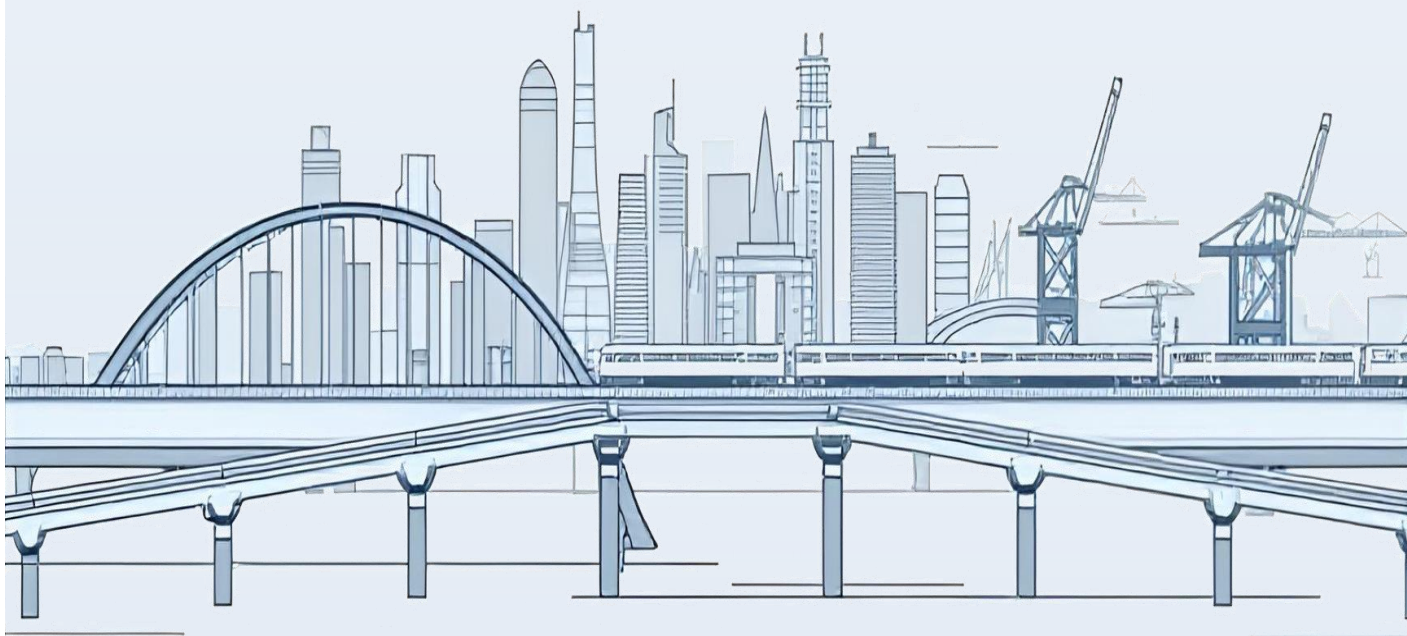


글로벌 PPP 사업 동향

Public Private Partnership

2026. 7.



목차

Contents

1. '26년 상반기 글로벌 인프라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동향

2. PPP 사업정보

3. 지역별 주요 뉴스

4. 마켓 집중탐구

5. PPP 사례 분석

글로벌 PPP 사업 동향(2026.7월)

KIND 사업협력실 국제협력팀

I

'26년 상반기 글로벌 인프라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동향

❖ 출처 :▷ LSEG Deals Intelligence,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Q1 2026*
▷ Green Street News, *Infrastructure Funds & Investors Report H1 2026*
▷ Green Street News, *Funds & Investors League Table H1 2026*
▷ Green Street News, *Infrastructure & Project Finance League Table Report H1 2026*

- ' 26년 상반기 글로벌 인프라 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요
- **(글로벌 시장 규모 지속 성장)**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인프라 금융 시장 규모는 약 1조 3,000억 달러로, ' 25년 상반기(약 1조 1,000억 달러) 대비 18% 증가
 - **(거래 건수의 감소와 대형화)** 글로벌 전체 거래 건수는 2,200건으로 전년 동기(2,416건) 대비 8.9% 감소하여, 거래 건수 감소와 함께 개별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대형 사업에 거래가 집중되는 경향
 - **(PF 부문 급성장)** 전체 인프라 금융 중 PF 부문은 6,827억 달러(총 992건)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4,446억 달러) 대비 53.6% 급증하여 전체 성장을 견인
 - **(신규 금융 조달 증가)** 신규 프로젝트 금융 조달 규모는 3,834억 달러(523건)로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
 - **(금리 압박에 대응한 선제적 리파이낸싱)** 사업주들이 금리 상승에 앞서 유리한 금융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인프라 금융 전체 리파이낸싱 규모는 2,496억 달러(264건)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하였으며, 이 중 PF 리파이낸싱은 1,295억 달러를 기록
 - **(인프라 M&A 시장의 선별적 접근)** 글로벌 인프라 M&A 규모는 2,392억 달러(676건)로 전년 동기(2,391억 달러, 751건)와 유사한 수준 유지
 - 높은 조달 금리와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비핵심 자산보다 디지털·전력 분야의 대형 핵심 자산에 집중

□ PF 지역별 및 분야별 세부 동향

○ (지역별 PF 동향) 북미의 압도적 우위

- (북미) 전체 인프라 금융 7,307.27억 달러, PF 부문 약 4,313.3억 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함*

* 북미의 인프라 금융 가치는 유럽의 2.6배, 아시아 태평양의 4.6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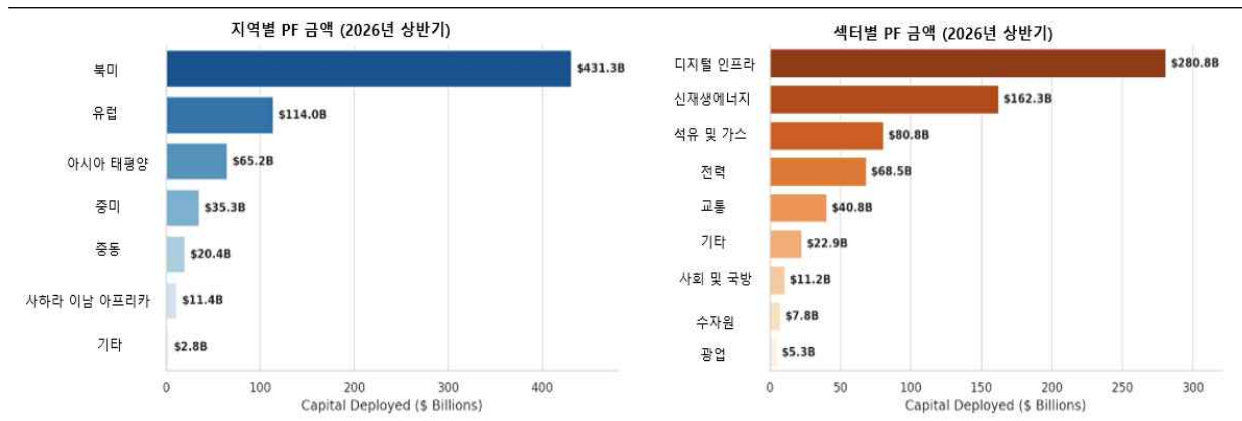
- (유럽) 전체 인프라 금융 약 2,800.45억 달러, PF 부문 약 1,140.25억 달러
- (아시아태평양) 전체 인프라 금융 약 1,578.67억 달러, PF 부문 약 651.88억 달러

○ (섹터별 PF 동향) 디지털 및 재생에너지의 양강 구도

- (디지털 인프라) AI 수요 확대에 따른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인프라 금융 약 4,367.31억 달러, PF 부문 약 2,808.45억 달러(147건)를 기록하며 가장 활발한 투자 부문으로 성장
- (재생에너지) 인프라 금융 약 2,220.66억 달러, PF 부문 약 1,623.43억 달러를 기록*

* 자금 규모 면에서는 디지털 인프라에 뒤졌으나, 거래 건수 기준으로는 527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기록하며 다수의 프로젝트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26년 상반기 PF 금액 분포】



※ 자료: Green Street News, Infrastructure and Project Finance League Table Report H1 2026 (그림: KIND 재구성)

□ 공공 · 민간 파트너십(PPP) 글로벌 동향

○ (완만한 거래 가치 상승 및 건수 급감) 글로벌 PPP 시장 규모는 '25년 상반기 약 169억 달러에서 '26년 상반기 약 174억 달러로 완만하게 성장하였으나, 거래 건수는 35건에서 27건으로 급감

- (사유) 공공 재정의 긴축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규 PPP 발주 및 조달에 악영향을 미침

-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으로 편중)** 상위 2개 메가 프로젝트*가 글로벌 전체 PPP 거래 가치의 약 29%(약 50억 달러)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중심의 교통 및 송전 프로젝트가 전체 시장을 지탱

* 인도 Bhadla-Fatehpur HVDC 송전망 사업, 튀르키예 Kinali-Malkara 고속도로 사업

□ 상반기 주요 메가딜

-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요 거래)**
 - **(AI XPV Hyperscale Data Centers Phase 1 (북미))** 디지털 인프라, 350억 달러 (2026년 6월 9일 종결, 상반기 최대 규모 딜)
 - **(Vantage TX301 AI Hyperscale Data Center Campus (1,358MW) (북미))** 디지털 인프라, 267.64억 달러 (2026년 4월 30일 종결)
 - **(Related Digital Saline Township Data Center Campus (974MW) (북미))** 디지털 인프라, 160억 달러 (2026년 5월 1일 종결)
 - **(CP2 LNG Terminal Phase 2 (북미))** 석유 및 가스, 134.48억 달러 (2026년 3월 13일 종결)
 - **(Commonwealth LNG Export Facility (북미))** 석유 및 가스, 130.02억 달러 (2026년 5월 14일 종결)
- **(글로벌 PPP 상위 딜)**
 - **(Bhadla-Fatehpur HVDC Transmission System (950km) (인도))** 전력 분야, 30억 달러 (2026년 2월 9일 종결, 최대 PPP 딜)
 - **(Kinali-Malkara Motorway (105km) (튀르키예))** 교통 분야, 20억 달러 (2026년 6월 17일 종결)
 - **(BR-101 Mucuri-Mimoso do Sul Highway (478.7km) (브라질))** 교통 분야, 11.53억 달러 (2026년 5월 15일 종결)
 - **(Sao Paulo Paranapanema Highways Lot 3 (285km) (브라질))** 교통 분야, 11.16억 달러 (2026년 1월 29일 종결)

- '26년 상반기 북미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 급성장 원인
 - **(AI 및 하이퍼스케일러 주도의 자본지출(CAPEX) 급증)** 글로벌 빅테크 기업(하드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약정하면서, 인프라 파이낸싱 시장이 AI 및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슈퍼사이클(AI Infrastructure Supercycle)에 진입
 - 북미는 이 사이클의 최대 중심지 역할
 - **(전력망 자산 확보 경쟁 본격화)**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면서 막대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및 송전 인프라 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금융 조달과 인수합병(M&A) 경쟁이 디지털 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견인
 - **(인프라 자산 운용사(GP)의 섹터 전문화 및 전용 펀드 조성)** 자산 운용사들이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서도 디지털 전용 전략을 수립하여 대규모 전문 펀드를 조성함
- '26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분야 PPP 사업 추진 현황
 - '26년 상반기 글로벌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시장은 정부 건축 재정과 고금리(조달 비용 상승)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다소 위축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력망을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들이 성사
 - **(신·재생에너지 연계 송전 인프라 PPP의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자체뿐만 아니라, 생산된 친환경 전력을 대규모 소비처로 송전하기 위한 그리드 PPP 인프라가 상반기 시장을 지탱
 - **(친환경 자원순환 및 신재생에너지 PPP 추진)** 영국에서는 8.77억 달러 규모의 Tees Valley Waste-to-Energy Facility (50MW) 재생에너지 PPP 프로젝트가 금융 종결(2026년 4월 22일)에 성공하며 친환경 자원 순환 분야의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

II

PPP 사업정보

❖ 출처 : LSEG Workspace (lseg.com/en, 26.7. 업데이트 기준)

□ 신규 프로젝트(2개)

지역	국가	발표일	분야	프로젝트	사업비 (백만불)
미주	페루	'26.7.1	에너지	○ (사업명) 엔지 에네르히아 피우라 송전 포트폴리오 PPP 사업 (ENGIE Energía Piura Power Transmission Portfolio PPP Project) ○ (사업개요) 페루 피우라(Piura) 지역에 민관협력 (PPP) 방식으로 400km 및 500km 송전선 건설 - 주요 주주 : Engie Energía Peru SA - 사업 시행자 : ENGIE Energía Piura Power Transmission - 준공 예정일 : 2031년 12월 말 - 계약 현황 : 2026년 7월, ProInversión과 30년 간의 BOO(Build-Own-Operate) 계약 체결	약 230
	미국	'26.7.7	병원	○ (사업명) 리알토 뉴 시티 홀 PPP 사업 (Rialto New City Hall PPP Project) ○ (사업개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알토에 민관협력 (PPP) 방식으로 신청사 건설 - 주요 출자자 : City of Rialto, California - 사업 시행자 : Rialto New City Hall PPP - 정부 지원 : 지분(Equity) 참여 형태	미정

Ⅲ

지역별 주요 뉴스

❖ 출처 : InfraPPP (infrappworld.com, 26.7. 업데이트 기준)

지역	국가 (기사 일자)	주요 뉴스
미주	캐나다 (‘26.7.9)	○ 보먼빌 병원 재개발 사업 (Lakeridge Health-Bowmanville Hospital) - (사업 내용) 더럼(Durham) 지역의 의료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보먼빌 병원의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하는 사업. 3단계 중환자 치료 시설(Level 3 Critical Care), 현대적인 개인 병실, 외래진료 클리닉, 혈액투석 센터, 그리고 신속한 응급 이송을 위한 옥상 헬기장 등을 포함 - (현황 및 계획) 제안요청서(RFP)에 따른 제안서 접수가 마감되었으며, 숏리스트에 선정된 'Bowmanville Health Partners'와 'PCL Partnerships' 2개 컨소시엄이 최종 제안서 제출. 인프라스트럭처 온타리오(IO)와 레이크리지 헬스는 향후 몇 달간 제안서를 평가한 후, 2026년 가을에 최종 승인을 거쳐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
	캐나다 (‘26.7.14)	○ 응급요원 및 최일선 의료진 PTSI 치료센터 건립 사업 - (사업 내용) 소방관, 경찰, 구급대원(EMS), 교도관 및 최일선 의료진(의사, 간호사)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손상(PTSI)을 겪는 이들을 위한 캐나다 최초의 전용 치료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 토론토의 5층 규모 통합 허브 시설인 'Station No. 3434'와 필(Peel) 지역의 40병상 규모 주거형 치료 시설인 'Caledon Recovery Centre'의 두 개 시설을 각각 설계-입찰-시공 (Design-Bid-Build) 방식으로 건립 - (현황 및 계획) 인프라스트럭처 온타리오(IO)와 러니미드 헬스케어 센터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동 자격요건제출요청서(RFQ) 발행. 자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발행할 예정이며, Caledon Recovery Centre는 2026년 늦은 가을, Station No. 3434는 2027년 봄에 RFP가 발행될 계획
	칠레 (‘26.7.27)	○ 산티아고 국제공항 확장 사업 - (사업 내용) 산티아고에 위치한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AMB) 국제공항의 제 3차 양허(Concession) 및 장기 용량 확장을 위한 기준 예비 설계(Reference Preliminary Project) 수립 사업. 예상되는 여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공사 및 투자 항목을 정의 - (현황 및 계획) 칠레 공공사업부(MOP) 공항국이 국내외 컨설팅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적격성 심사(Prequalification) 개시. 사전 적격 컨설턴트 특별 등록부(Special Register)를 구축한 뒤,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본 설계 컨설팅 계약 입찰 진행 예정
	캐나다 (‘26.7.29)	○ 온타리오 플레이스 합류식 하수관 월류(CSO) 재개발 사업 - (사업 내용) 온타리오 플레이스(Ontario Place) 수변 재개발 및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토론토 레이크 쇼어 대로 955번지 인근의 합류식 하수관 월류(CSO) 시설을 이설·연장하는 사업. 공공 공간 업그레이드, 수변 접근성 확대, 수변 구역 복원 및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조경·편의시설 구축 작업 포함

지역	국가 (기사 일자)	주요 뉴스
		- (현황 및 계획) 인프라스트럭처 온타리오(IO)와 관광체육게임부(MTCG)는 경쟁 조달 프로세스를 거쳐 EllisDon Civil Ltd.를 건설 관리 서비스 업체로 최종 선정하여 계약 체결. 공사는 2026년 7월 중 착공하여 2028년 봄 완료를 목표로 함
유럽	벨기에 (26.7.13)	○ 플란데런 지역 38개 신규 학교 건립 사업 - (사업 내용) 플란데런 지역의 학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교육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총 38개의 신규 학교 건립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약 5억 유로(약 5.7억 달러)에 달하며, 완공 시 20,0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 - (현황 및 계획) 플란데런 정부는 민간 컨소시엄인 'Scholen op Maat 컨소시엄(Invesis와 Belfius의 파트너십)'을 파트너로 최종 승인. 본 사업은 정부가 완공 후 30년간 지급하는 정기 지급금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DBFM(설계·건설·금융·유지보수) 모델로 추진되며, "Scholen van Vlaanderen" 프로그램의 2단계 사업으로 즉시 건설에 착수 예정
	리투아니아 (26.7.16)	○ 루드닝카이(Rūdninkai) 군사기지 개발 사업 - (사업 내용) 전략적 요충지인 수바우키 회랑 인근 루드닝카이 지역에 4,000명의 독일군 여단과 750명의 민간 직원을 영구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NATO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사업. 170헥타르 부지에 약 150개의 건물(주거, 의료, 훈련 시설, 창고 등)과 11km 규모의 도로를 포함하며, 리투아니아 독립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 인프라 사업 - (현황 및 계획) 유럽투자은행(EIB)이 총 2.9억 유로(약 3.3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 지원 계약을 최종 체결함. 기지 건설은 세 개 구역(Lot A, B, C)으로 나뉘어 병렬로 진행 중이며, 2027년 말까지 기지를 전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26.7.3)	○ 움알쿠라 대학병원 완공 및 운영 PPP 사업 - (사업 내용) 메카(Makkah) 지역에 위치한 움알쿠라(Umm Al-Qura) 대학병원의 미완공 건설 작업을 마무리하고, 391병상 규모의 통합 대학병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사업. 민간 파트너가 남은 건설 작업을 완수하고 임상 서비스(외래, 입원, 응급, 수술 등)와 비의료 시설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DBFOM(설계·건설·금융·운영·유지보수) 모델이며, 계약 기간은 30년임 - (현황) 움알쿠라 대학교와 국립민영화·PPP센터(NCP)가 공동으로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의향서(EOI) 접수를 공식 개시함
	바레인 (26.7.17)	○ 히드(Hidd) 독립 수자원 생산(IWP) 프로젝트 - (사업 내용) 바레인의 장기 수자원 안보 확보를 위해 해수 역삼투압(SWRO) 기술을 적용한 대형 담수화 플랜트 건설 사업. 완공 시 시간당 11,364m³의 가용 담수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BOO(건설·소유·운영) 방식으로 추진 - (현황) 바레인 전력수자원청(EWA)의 입찰 결과, 사우디의 아크와 파워(ACWA Power)가 균등화 용수비용(LCOW) 기준 입방미터당 BHD 0.276의 최저가를 제시하여 가장 유력한 낙찰 후보로 평가됨

지역	국가 (기사 일자)	주요 뉴스
	카타르 (‘26.7.23)	○ 메사이드 산업도시(Mesaieed Industrial City) 확장 사업 - (사업 내용) 카타르의 제조 및 하류(Downstream) 산업 부문 강화를 위해 메사이드 산업도시 확장 구역 내에 새로운 중형 산업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 에너지와 유틸리티(천연가스, 전력 등)를 입주 기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제조업 혁신과 경제 다각화를 도모하는 사업 - (현황 및 계획)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가 카타르 통상산업부(MoCI)와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범위서(ToR) 계약에 합의. 향후 재무부, 카라마(KAHRAMAA)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 구체화에 착수할 예정
	오만 (‘26.7.30)	○ 오만 수의 검역소 PPP 사업 - (사업 내용) 오만 농수산수자원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Water Resources)가 주관하는 현대식 수의과 검역소(Veterinary Quarantine Centres) 개발 사업. 민간 파트너가 DBFOM(설계·건설·자금조달·운영·유지관리) 모델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국가 및 국제 표준에 맞추어 동물의 수입 및 검역을 규제하는 정부의 활동을 지원함 - (현황 및 계획) 자격 사전심사(RFQ) 단계에서 총 25개 사가 참가자격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평가를 거쳐 4개사가 적격 입찰후보자로 선정됨 (선정된 4개사: Al Madina Logistics Services, Tianjin Ringpu Bio-Technology Company, EDECS Contracting Holding, Arkan Logistics) 향후 제안요청서(RFP) 발행, 최종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단계가 진행될 계획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26.7.1)	○ 조민(Zomin) 정수장 PPP 사업 - (사업 내용) 우즈베키스탄 지자흐(Jizzakh) 지역의 급수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하루 50,000m³ 용량의 조민 정수장 성능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 총 계약 규모는 약 1.05억 달러 (약 3억 9,500만 사우디 리알) - (현황 및 계획)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프라 개발사인 미아호나(Miahona)가 우즈베키스탄 국영 수자원 기업인 우즈수브타미노트(Uzsuvtaminot)와 25년 기간의 PPP 계약 체결. 이 계약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관련 정부령(Decree) 제정과 정부 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발효될 예정
	필리핀 (‘26.7.8)	○ 뉴클락시티 ICT 인프라 구축 사업 - (사업 내용) 뉴클락시티 내에 25억 필리핀 페소(약 4,060만 달러) 규모의 수동형(Passive)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 사업. 오픈 액세스 파이버(Open Access Fiber) 모델을 기반으로 민간 파트너가 공유 광케이블망을 관리 및 임대하여 현지 통신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구조. (계약 기간은 최초 25년이며, 추가로 25년 연장 가능) - (현황 및 계획)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BCDA)이 진행한 13개월간의 조달 과정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한 곳도 없어 최종 유찰(Failure of Bidding) 처리됨. (2023년 1차 유찰에 이은 두 번째 유찰) 다만 BCDA는 미국·필리핀 주도의 'Pax Silica' 구상에 발맞춰 1,600헥타르 규모의 AI 산업 허브(반도체·데이터 센터 관련기업 등을 유치 목적)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ICT 인프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

지역	국가 (기사 일자)	주요 뉴스
아프리카	앙골라 (26.7.21)	○ 앙골라 루안다 수자원 PPP 환경·사회(E&S) 컨설턴트 선정 사업 - (사업 내용) 앙골라 루안다(Luanda) 수도권 지역의 상수도 분배망 운영 개선을 위한 민간 투자(PPP) 구조 설계에 앞서, 국제금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 및 사회 스코핑 연구(E&S Scoping Study)를 추진할 전문 컨설팅사를 선정하는 사업 - (현황 및 계획) 사업의 거래자문사인 국제금융공사(IFC)가 주도하여 전문 용역을 수행할 컨설팅 기업들의 참가의향서(EOI) 제출을 요청한 상태. (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23일까지임)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26.7.31)	○ 뉴질랜드 고속도로 PPP 사업 - (사업 내용) 오클랜드(Auckland)와 노스랜드(Northland)를 잇는 고속도로(Northland Expressway) 중 Warkworth-Te Hana 구간을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민관협력(PPP) 사업. 총 사업규모는 건설 및 운영을 포함한 32년의 계약기간 동안 순현재가치(NPV) 기준으로 약 36억 4,900만 뉴질랜드 달러(약 21억 달러)이며, 이 중 약 30억 뉴질랜드 달러(약 18억 달러)가 고속도로 설계 및 건설에 배정됨. Northway 컨소시엄(ACCIONA 및 Aberdeen Investments로 구성)이 자원 조달, 사업 수행,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이 중 ACCIONA가 토목, 터널, 도로 시스템 등의 설계 및 건설을 전담함 - (현황 및 계획) 최근 뉴질랜드 교통청(Waka Kotahi NZTA)과 금융 종결(Financial Close)을 완료. 향후 상세 설계(detailed design), 현장 준비 및 인력·장비 투입(site mobilisation) 단계를 거친 뒤 착공 예정

- ❖ 출처 : ▷ National Infrastructure and Service Transformation Authority (2025). *UK Infrastructure: A Ten-Year Strategy*
- ▷ UK House of Commons Committee of Public Account (2024). *Government's use of Private Finance for Infrastructure*
- ▷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CBI) (2023). *Unlocking Infrastructure Investment*
- ▷ World Bank (2023). *Benchmark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 United Kingdom Profile*

□ 영국 PPP 시장 개요 및 관리 체계 개편

- **(민관협력을 활용한 국가 인프라 확충)** 영국 정부는 경제 성장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학교, 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
- **(통합 감독 기구(NISTA) 신설)** '25년 4월, 인프라 정책·전략·조달 조율을 위해 기존 국가인프라위원회(NIC)와 인프라사업청(IPA)을 통합하여 재무부·내각부 공동 조직인 '국가인프라·서비스전환청(NISTA)' 신설
 - NISTA는 민간 자본 유치 및 프로젝트의 상업적·재무적 자문 담당
- **(대규모 민간 투자 수요)** 송배전망, 수자원, 디지털 등 규제 인프라 부문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대 연간 약 400억~500억 파운드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

□ 과거 PFI/PF2 모델의 한계 및 폐기 배경

- **(제도 개요)** 영국 정부는 1992년 민간자금 유치제도(PFI) 및 표준 계약서(SOPC)를 도입하고 '12년 PF2로 개정하여 인프라 조달에 활용했으나, '18년 11월 신규 정부 사업 적용 중단
- **(구조적 한계점)**
 - **(조달 절차의 비효율성)** 조달 절차가 매우 비효율적이었고 입찰 과정이 장기화·복잡화되어 입찰 기업들에 막대한 재정적·행정적 장벽이 됨

- **(부적절한 위험 전가와 사후 관리 공백)** 위험 이전을 실질적인 위험 관리와 동일시하는 ‘위험 관리의 착시’가 존재*

* 민간 파트너가 파산할 경우(예: 캐릴리온 청산 사태), 프로젝트 완수 책임과 리스크가 고스란히 공공 부문으로 복귀

[참고 - 캐릴리온(Carillion) 청산 사태]

- 영국의 대형 공공 인프라 건설 및 서비스 공급업체였던 캐릴리온이 '18년 초에 파산 및 청산(Liquidation)에 돌입하며 국가적인 인프라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은 사건
- **사태의 핵심 문제와 '위험 전가'의 한계**
 - **(위험 전가와 위험 관리 혼동)** 과거 영국의 민자사업 구조에서는 민간 파트너에게 위험을 이양(Risk Transfer)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공공 부문의 위험 관리(Risk Management)가 된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
 - **(리스크의 정부 귀착)** 하지만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대형 시공사가 파산하자, 계약상의 위험 배분과 상관없이 결국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하는 책임과 리스크는 궁극적으로 공공 부문에 귀속됨
 - **(정부 직접 개입 및 재정 투입)** 실제로 캐릴리온의 부도로 인해 대규모 병원 건설 프로젝트 2개가 중단되었으며,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이 병원들을 완공
- **캐릴리온 사태 이후 영국 정부의 제도적 대책**
 - **(계약 내 '비상대응계획(Living Will)' 명시)** 민간 파트너 파산을 대비해, 계약서 내에 해당 협력업체가 공급하던 핵심 서비스를 어떻게 중단 없이 지속할 것인지 상세히 규정한 '비상대응계획(Living Wills)' 및 해결 계획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부처별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ning) 수립)** 정부 부처들이 공급업체 부실에 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4개의 분야별 플레이북, 12개의 가이드 노트, 그리고 회생·정리 계획이 담긴 '소싱 플레이북(Sourcing Playbook)'을 발간하고 정부 상업 기능 조직(Government Commercial Function)을 통해 비상 대응 계획 수립을 도움
 - **(독립적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증 의무화)** 과거 PFI 사업의 '시공사 자체 모니터링(Self-monitoring)' 방식이 부실과 정보 공백을 초래했다는 교훈에 따라, 향후 모든 인프라 건설 과정은 반드시 공공 부문이 임명한 공사 감독관(Clerk of Works)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인 공인 기관의 준공 검증(Independent certification)을 거치도록 통제 기준을 강화

- **(부채 은폐 목적의 재정적 착시(Fiscal Illusion))** 실제 예산 가성비(Value for Money)보다는, 사업 비용과 관련 부채가 정부 재정지표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장부 외(Off-balance sheet)’ 처리에 집착하여 가성비 검토가 왜곡됨
- **(자산 반환 기준의 불명확성과 계약관리 부실)** 만기 도래 시 공공 부문으로 반환되는 자산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조항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고 자산 품질이 저하됨

□ 현행 대체 모델(RAB, CfD, MIM)의 특징 및 구조적 차이

○ (규제자산 기반(RAB, Regulated Asset Base) 모델)

- (개념 및 구조) 주로 수자원, 에너지, 교통 등 규제 인프라에 적용되며, 기업이 투자한 자산 가치(RAB Value)를 기준으로 허용 수익률을 포함한 비용을 소비자 요금(User bills)을 통해 장기간 회수
- (적용) 템즈 타이웨이 터널, 히드로 공항 터미널 5, 사이즈웰 C(Sizewell C) 원전 등에 적용 중이거나 검토 중

○ (차액결제계약(CfD, Contracts for Difference) 모델)

- (개념 및 구조) 도매 시장 매출이 존재하나 가격 변동성이 커 민간 금융 조달이 어려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발전 사업자에 일정 기준가격(사전에 정해진 행사가격)을 보장하여 재무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모델
- (적용)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에 널리 쓰이며, 가스 및 수소 발전의 경우 가용성 지불금(Availability Payment)과 결합된 DPA(Dispatchable Power Agreement) 모델로 진화

○ (상호투자모델(MIM, Mutual Investment Model))

- (개념 및 구조) 민간이 자산을 설계·건설·건설·유지관리하고, 웨일즈 정부가 건설·유지관리·금융조달 비용을 포괄하는 fee를 민간 파트너에게 지급하며, 계약 종료시 자산은 공공 소유로 이전됨
- (적용) 학교, 도로, 병원 등 사회적 인프라

○ (구조적 차이 요약)

- (재원 조달 방식) PFI는 납세자 재원의 연간 지불금(Unitary charges)에 의존하는 정부 지불형이나, RAB는 최종 소비자 부담으로, CfD는 전력 도매 시장 매출(및 변동성에 대한 정부의 차액 보증)로 작동. MIM은 재원 회수 메커니즘이 정부 지급형이라는 점에서 PFI와 유사
- (위험 배분 메커니즘) PFI는 단순 위험 전가에 치중했으나, RAB와 CfD는 각각 정부(규제 기관) 및 시장 시스템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여 민간 금융 비용을 낮추고 조달 경쟁력을 높임. MIM은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 공공이 지분(최대 20%)과 이사회 참관권으로 직접 공유·개입하는 방식

□ 에너지 및 신재생 분야 중심의 민자사업 트렌드

- **(청정에너지 강국(Clean Energy Superpower) 비전)** '30년까지 청정 전력(Clean Power) 체계를 구축하고 넷제로를 가속화하기 위해 막대한 인프라 투자 유치 중
- **(에너지 분야 CfD 메커니즘 진화)**
 - **(CfD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30년까지 해상풍력 43~50GW, 육상풍력 27~29GW, 태양광 45~47GW 확보를 목표로 CfD를 핵심 재정 메커니즘으로 지속 활용 중
 - **(가용성 지불금(Availability Payment))**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연계 가스 발전(예: Net Zero Teesside 프로젝트) 및 수소 발전은 가용성 지불금과 CfD를 결합한 DPA 모델을 채택하여 안정성을 보장
- **(원전 및 신산업 부문 RAB 대규모 도입)**
 - **(대규모 원전 사업)** 사이즈웰 C 원자력 발전소(3.2 GW 규모) 건설을 위해 영국 정부가 142억 파운드를 투입하는 한편,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 RAB 모델을 전격 적용하여 투자 유치 과정 진행 중
 - **(수소 인프라)** 초기 소형 그린수소 사업을 넘어 대규모 허브 조달을 위해 최초의 지역 수소 수송·저장 네트워크에 RAB 모델 적용 추진 중
- **(기타 보완적 민자 유치 프레임워크)**
 - **(Cap & Floor)** 송전선망(Interconnectors) 및 해상송전망(OFTO)에 이어 '25년 4월부터 장기 전력 저장(LDES) 프로젝트에도 수익의 하한과 상한을 설정하는 Cap & Floor 모델 신청 접수 시작
 - **(정부 주도 금융 기구의 마중물 역할)** 278억 파운드의 재원을 보유한 국가자산펀드(NWF, National Wealth Fund)가 CCUS, 워밍 홈 계획(Warm Homes Plan) 등 녹색 인프라 투자의 개발금융 및 마중물 자본을 공급. 또한 공공 청정에너지 기업인 'Great British Energy(GBE)'가 설립되어 민간과의 청정에너지 자산 공동 개발에 83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

□ 국가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예산 구조 및 위험 관리 대책

○ (초대형 프로젝트 공동 예산 구조 및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도입)

- (적용 기준)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이 100억 파운드 이상이고, 개발 및 건설에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다수의 정부 부처가 조율해야 하는 핵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함
- (단계별 점진적 예산 수립(Staged, Incremental Funding)) 개발 단계에서 설계가 구체화되고 위험 요인이 실질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예산을 단계적으로 승인 및 증액하며, 준비가 부족한 프로젝트가 무리하게 착공 단계로 넘어가는 일을 원천적으로 방지
- (예산 범위 추정치(Range Estimates) 도입)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단일 수치의 목표 예산 대신 불확실성을 그대로 반영한 넓은 비용과 일정의 범위 추정치를 적용
- (확정 자본 한도(Fixed Capital Envelope) 제공) 정식 건설 단계로 진입하면 프로젝트 전체 기간에 대한 확정 자본 한도를 보장받음. 이를 위해 연간 관리 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 예산 분류를 적용하거나 재무부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간 자금을 유연하게 이월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음
- (인재 채용 및 급여 결정 자율권) 공무원 급여 상한 규정 등으로 인해 전문 기술 인력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프로젝트 전담 추진 기관에 전문 직무 급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 부여
- (보고 체계 일원화) 주요 설계 변경이나 범위(Scope) 조정이 있을 때마다 ‘전략 및 추진 계획(Strategy and Delivery Plan)’을 수립, 의회에 정부문서(Command Paper) 형태로 의무 제출해 정치적 단절과 리스크를 절감

○ (사이즈웰 C(Sizewell C) 원자력 발전소)

- (세부 예산 구조) ①영국 정부, 사이즈웰 C 원전의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 Spending Review 2025 기간 동안 총 142억 파운드의 국고 보조 자금을 할당하여 직접 지원 ②투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자산기반(RAB)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패키지 개발 및 민간 소수지분 투자 유치 프로세스를 병행

[참고 - 규제 자산 기반(RAB, Regulated Asset Base) 모델]

- 주로 수자원, 에너지, 교통 등 경제적 규제를 받는 인프라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자금 조달 프레임워크
- **작동 구조 및 원리**
 - **(자산 가치 기반의 수익 결정)** 규제 자산의 가치(RAB value)를 기준으로 해당 인프라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허용매출(allowed revenue) 산정
 - **(소비자 요금을 통한 회수)** 민간 사업자는 자신이 투자한 건설 및 운영 비용에 더해 규제 기관이 승인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익률(reasonable return)을 보장받으며, 이 비용은 세금이 아닌 최종 소비자 요금(customer charges)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회수
- **영국의 주요 적용 사례**
 - **(기존 경제 인프라)** 런던의 대규모 하수도 고도화 사업인 템즈 타이웨이 터널(Thames Tideway Tunnel)과 히드로 공항 터미널 5(Heathrow Terminal 5) 프로젝트에 RAB 모델을 적용하여 약 90억 파운드 규모의 민간 자본을 성공적으로 조달하여 건설
 - **(신규 기후-에너지 핵심 사업)** 사이즈웰 C 원자력 발전소, 수소 수송 및 저장 네트워크
 - **(기타)** 하부 템스 터널 교차로(Lower Thames Crossing) 등 검토 중

- **(위험 관리 대책) ①(규제·인허가 절차의 신속화)** 원전 건설이 장기화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원자력규제태스크포스(Nuclear Regulation Taskforce)’를 정식 출범하고, 신규 원전 국가정책서 초안(draft National Policy Statement EN-7)을 적기에 마련해 인허가 리스크를 예방 ②**영국 가치평가청(OVfM)*의 단계별 예산 증액 및 자율적 예산 조정 프레임워크**를 철저히 적용하여 건설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폭증 위험을 조절

* OVfM(Office for Value for Money) : 영국의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의 가성비와 거버넌스를 정밀 평가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제시하는 핵심 기구

○ **(고속철도 2호선)**

- **(세부 예산 구조) ①**영국 정부는 건설중인 런던-웨스트 미들랜드 구간 완공을 위해 '26~'27년에서 '29-'30년 사이에 총 253억 파운드의 정부 자금 투입을 확약 ②**(유스턴(Euston)역 민간 자본 유치 구조)** 유스턴 신규 역사 건설 및 배후 철도 부지 개발을 위해 민관협력 모델 검토 중. 주변 60에이커 역세권 개발 가치를 환수하여 재투자하는 조세증대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TIF) 스타일의 파이낸싱 메커니즘을 결합해 공공 재정 투입분의 회수 유도 예정

- **(위험 관리 대책) ❶(프로그램 전면 리셋 통제 강화)** 제임스 스튜어트(James Stewart)가 이끈 ‘주요 교통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보증 검토(Major Transport Projects Governance and Assurance Review)’ 권고안에 따라 사업 전반을 리셋함. 새로운 리더십 하에 거버넌스와 내부 리스크 통제 수단을 전면 재조정 ❷(Euston 전담 인프라 사업 추진 기관 설립) 역사 주변의 상업·라이프사이언스 허브 조성 및 주택 건설 연계 개발을 조율하기 위해 전담 기관인 ‘Euston Delivery Company’를 설립하여 이해관계자 간 조정 및 사업추진 리스크 관리

○ **(하부 템스 터널 교차로 (Lower Thames Crossing))**

- **(세부 예산 구조) ❶Spending Review 2025를 통해** ’26-’27년 회계연도에 초기 자금으로 5.9억 파운드가 할당되었으며, 이는 기존 1단계 Spending Review에서 보장된 2.5억 파운드에 더해진 조치 ❷최종 이용자 부담과 납세자 관점의 가성비(Value for Money)를 최적화하기 위해, 민간 금융 및 전문성을 결합하는 규제자산기반(RAB) 모델의 세부 설계 진행 중. 후속 연도의 구체적인 재정 집행 계획은 민간 협상이 완료된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
- **(위험 관리 대책) ❶(법적 분쟁 리스크 관리 성공)** 교통부에 제출한 하부 템스 터널 개발 신청서가 ’25년 3월 정식 승인되었으며, 민자사업의 핵심 지연 요소인 소송 제기 없이 마무리되어 소송 지연 위험을 해소하고 가속화 단계에 돌입 ❷초기 설계 단계부터 국가인프라·서비스전환청(NISTA)의 통합 상업·재무 자문 및 검증 체계하에 세부 리스크를 상시 검토

❖ 출처 : UNECE Campaign to reach 500 PPPs for the SDGs case studies (MAY 2026)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Gordie Howe International Bridge Project (미국-캐나다)	○ 프로젝트 개요 - (사업명) 고디 하우 국제교량 프로젝트 (Gordie Howe International Bridge) - (위치) 캐나다와 미국 국경의 윈저-디트로이트 회랑(Windsor-Detroit corridor)에 위치 하며, 디트로이트 강(Detroit River)을 가로질러 캐나다 온타리오의 Highway 401과 미국 미시간의 Interstate 75를 직접 연결 - (내용) 윈저-디트로이트 교량을 민관협력(P3) 방식으로 설계·건설·자금조달·운영·유지관리 (DBFOM)하는 인프라 사업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도로 개발 포함) - (목적) 노후화되고 용량이 제한적이며 대체 경로가 없던 기존 교량 인프라로 인해 발생하던 정체, 교역 위험, 그리고 인근 지역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해결. 이를 통해 가장 번잡한 미-캐나다 무역 회랑의 교역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트럭 교통량을 분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 자금 조달 및 사업 구조 - (총 예상 지출) 약 57억 달러* * 설계 및 건설 단계와 향후 30년간의 운영, 유지보수, 보수 기간을 모두 포함 - (자금 조달) · (공공재원) 캐나다 정부가 프로젝트 후원자이자 자금 제공자로서 윈저-디트로이트 교량공사(WDBA)를 통해 프로젝트의 자본 비용을 책임짐 · (민간재원) 민간 컨소시엄인 'Bridging North America (BNA)'가 민관협력(P3) 구조 하에 민간 채권 및 지분 금융(private debt and equity financing)을 제공 - (사업 구조) 민관협력(P3) 장기 양허(Concession) 계약 방식. 사용자 요금 수납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 민간이 도로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대가를 지급하는 가용성 기반 지불(availability-based payments) 방식을 도입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도모함. 공공이 소유권과 거버넌스를 지탱한 상태에서 건설, 수명주기, 성능 리스크를 민간에 합리적으로 이양 - (정부 지원) 캐나다 정부가 직접 재정 및 기획 스폰서 역할을 맡으며 미국 연방 및 주 정부 당국이 협력하는 강력한 공공 지원 체계 하에 진행 ○ 진행 경과 - 2018년 : 금융 종결 - 현황 : 장기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Operations and Maintenance stage)로 전환 중 ○ 프로젝트 특징 - (지역사회 혜택 계획) 지역 인력 채용 우선권 제공, 인력 개발 교육, 소외계층 및 소수자 소유 기업에 대한 사업 기회 보장 등 실질적인 사회 형평성 정책 도입 - (환경 및 기후 회복력) 극단적 고온, 강풍, 폭우 등 심각한 기후 변화 요인에 견디도록 견고하게 엔지니어링 설계되었으며, 높은 지속가능성 기준을 검증받아 Envision Platinum 인증을 획득. 자원 미세화 및 자재 재활용을 통해 원자재 투입을 최소화하여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섬 - (확장 가능성) 복잡한 초대형 국경 국책 사업을 성능 기반 P3 프레임워크로 수행하는 우수한 벤치마킹 모델로서, 타 국경 사업 및 물류 운송 섹터에 확산 적용 가능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Huajiang Canyon Bridge and Bridge-Tourism Integration PPP (중국)	○ 프로젝트 개요 - (사업명) 화장협곡 대교 및 교량-관광 통합 PPP 프로젝트 - (위치) 중국 구이저우성(Guizhou Province) 남서부의 화장 대협곡(Huajiang Grand Canyon)을 가로지르며, 관링현과 전평현을 연결 - (내용) 총 길이 2,890m, 수면 위 주탑 높이 625m에 이르는 화장협곡 대교와 약 17.88헥타르 부지의 윈두 서비스 구역(Yundu Service Area)을 연계하여 개발함. 서비스 구역은 단순 톨게이트와 주유 공간을 넘어 협곡 호텔, 고공 전망 엘리베이터(높이 200m), 특색 요리식당가 등을 구비한 복합 휴양 단지로 구축됨 - (목적) 과거 두 현 사이를 우회해 가던 2시간 소요의 이동 경로를 교량 건설을 통해 2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 및 교통 병목을 획기적으로 제거함. 더불어 산재해 있던 명품 관광지를 하나로 이어 1시간 황금 관광 서클을 조성하고 관광 중심의 지역 경제 도약을 유도하는 데 초점 ○ 자금 조달 및 사업 구조 - (총 예상 자본 지출(Capex)) 약 3.1억 달러 - (자금 조달) · (자기자본) 9,345만 달러 (구이저우 통신투자그룹 Guizhou Communications Investment Group Co., Ltd이 전액 출자) · (타인자본) 2.18억 달러 (중국개발은행 구이저우 지점의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 - (사업 구조) 민간이 사용 요금을 직접 수납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용자 부담 방식의 PPP 방식. 계약 기간은 총 33.5년이며(건설 3.5년 및 운영·유지보수 30년), 전담 특수목적법인(SPV)이 기술 연구, 시공 및 유지보수 전 단계를 수주하여 운영 - (정부 지원) 구이저우성 인민정부가 공공 정책 수립 및 거시적 사업 승인 절차를 적극 지원함. 한편, 본 프로젝트에는 정부의 재정적 공공 보증이나 잠재적 우발 채무(Contingent liabilities) 보증이 개입되지 않아 정부 입장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 ○ 진행 경과 및 계획 - 2016년 10월 : 프로젝트 계획 단계 수립 - 2018년 12월 : 구이저우성 정부 승인 완료 - 2021년 : 공식 입찰 및 조달 절차 완료 - 2022년 1월 ~ 2025년 9월 : 건설 - 2025년 9월 ~ 2055년 8월 : 운영 ○ 프로젝트 특징 - (교량 인프라와 지역 상생농촌 진흥) "대교 관광 + 교량 하부의 실물 농가 경제"를 결합한 통합형 융복합 모델. 건설 과정에서 현지 농민 340명 이상을 고용하여 빈곤 탈출(1인당 연평균 소득 6,880달러 이상 증가)을 직접 도왔으며, 현재 운영 기간 중에도 400명 이상(여성 250명 포함)의 현지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함. 초기 단 4개월 만에 2,879만 달러가 넘는 관광 매출을 달성해 약 5만 명의 현지 농가 주민들이 수혜를 입음 - (첨단 기술 혁신의 집약) 주교량 케이블 전체에 온도, 습도, 응력을 실시간으로 계측·관리하는 광섬유 센서 모니터링(FBG) 기술과 첨단 제습 시스템을 탑재해 교량의 장기 내구성을 확보함. 단조-용접 복합 안장(Saddle) 디자인을 개발하여 자중을 약 30% 감량했으며 이를 통해 21건의 기술 특허를 획득해 중국 국가 시공 표준으로 상정됨. 아울러 중국 Beidou 위성 포지셔닝 기반의 스마트 크레인. 호이스트 공법으로 해발 600m 이상의 협곡 고지에서 밀리미터급 시공 정밀도를 달성 - (생태계 조화 및 녹색 보전) 웅장한 대협곡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자연 디자인 공법을 실현했으며, 서비스 구역 주변의 광활한 50km² 이상의 산림 생태계를 친환경 통합 보존 벨트로 묶어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음